

## 국시 시험문제 공개 … 보건의료인 전 직종 단계적 추진

### 국시원, 한의사 시험문제 내년부터 공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은 2018년 1월 19일 시행하는 제73회 한의사 국가시험부터 시험문제와 답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24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대해 2012년도부터 시험문제와 답안을 공개하고 있다. 보건의료인 전 직종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험문제를 공개해나갈 방침이다.

국시원은 이번 한의사 국가시험 시험문제와 답안 공개를 결정하기까지 2016~2017년 2년에 걸쳐 원장·자문기구인 '한의사 시험위원회'의 전문적 자문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내부회의 개최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밝

혔다.

국시원은 "소통과 혁신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국시원이 시험문제와 관련해 내린 고객중심의 능동적 정책결정"이라면서 "시험문제 공개정책은 국가시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결국 기관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문제는 시험당일 응시자가 본인의 문제지를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이의제기 기간(5일)에도 응시자 본인에 한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답안은 시험 종료 직후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험문제에 대한 응시자들의 이의제기 해소와 불필요한 행정

쟁송 예방을 위해 별도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전체 시험문제에 대한 정답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제기 문제 외에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이의제기 빈도가 높은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의 근거와 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시원은 2012년부터 공개하고 있는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매년 평균 60여건의 이의제기가 이뤄지고 있으나, 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소되고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ung@koreanurse.or.kr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 7곳 선정

#### 전문재활치료팀 운영해 맞춤식 재활서비스 제공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혔다.

시범사업기관은 국립재활원, 친병원, 휴엔유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료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이다. 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과 환자구성비율(30% 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급성기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키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초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

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지정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해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장정책과 장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 병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재활의료기관지정 운영팀(033-739-16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혜진 기자 hjo@

한국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친병원

휴엔유병원

파크사이드재

활의료병원

호남권역재활

병원

강원도재활

병원

제주권역재활

병원

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필수 지정기준

환자구성비율

(30% 이상)

지역

등을 고려

해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 임산부의 날 맞아 간호사 포상

국무총리 표창 3명 – 복지부장관 표창 3명

제12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 온 간호사들이 표장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장을 3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장을 3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 10일 열린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국무총리 표장'은 박현숙 대구시간호사회장, 박미혜 계명대 동산병원 수간호사는 27년간 분만장과 산과병동 등에서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했으며, 모성간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순정 울산 미즈병원 수간호사는 임산부 건강관리와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모유수유 권장 활동에 앞장서왔다. 모유수유 고육, 상담, 홍보 등을 통해 건강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장'은 김금희 충북보건간호사회장, 정미용 충북 충주시보건소 지방간호주사, 전미순 백석대 간호학과 부

교수는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박미혜 계명대 동산병원 수간호사는 27년간 분만장과 산과병동 등에서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했으며, 모성간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순정 울산 미즈병원 수간호사는 임산부 건강관리와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모유수유 권장 활동에 앞장서왔다. 모유수유 고육, 상담, 홍보 등을 통해 건강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장'은 김금희 충북보건간호사회장, 정미용 충북 충주시보건소 지방간호주사, 전미순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는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최수정 기자 sjchoi@

## ■ 듀크대 국제간호프로그램에 다녀와서 ■

글로벌 건강문제 논의 … 근거기반간호 중요성 배워



▲ 원쪽에서 둘째 이경현 학생

는 의문(질문)을 구조화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근거기반간호의 기본이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각 국가의 공통된 건강문제를 선정하기 위해 논의했는데, 건강문제와 결부된 문화에 대한 내용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근거를 찾기 위해 여려 논문을 읽어 보면서 실무현장에서 근거기반간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논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졸업 후 간호사로 일할 때 PICO 활동을 끊임없이 해 환자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간호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갖게 됐다.

각 나라의 의료시스템, 의료인력, 교육 정도, 모성·유아 건강지표, 만성질환 발생률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국을 대표해 사전에 준비한 PT를 영어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른 나라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그 나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 다른 나라에 비한 강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건강과 간호에 대한 생각과 간호에 대한 생각과 함께 세계로 넓어지는 계기가 됐으며, 글로벌 소통을 위해 영어회화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느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중 하나는 PICO 조별발표 수업이었다. PICO(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조별발표를 들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특히 간호의 기반이 되는 인권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동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더해 서 간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간호라는 공통분모로 모여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한 삶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던 시간들은 아직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나의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이경현 (강릉원주대 3학년)

## 간호사신문

별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다03638

◇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 간호사신문 (02) 2260-2571

서울시 종로구 동호로 314

FAX (02) 2260-2579

koreanurse.or.kr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 간호사 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보건 간호 사 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 진료소장 회	(02) 2266-7677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간 교 사 회	(02) 527-336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 간호 사 회	010-3103-0748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보건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 암 간호 사 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042) 878-4590	정신 간호 사 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노인 간호 사 회	(031) 750-59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윤리실천효과를 준수합니다.

## 간호사만의 특권, RNcard!!

화 바뀐 하나카드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 첫 결제 후 10,000원 상당의 연회비 지원!

• RNshop에서 첫 결제 시 5,000포인트 지급!

• 협회 관련 결제 시 20,000원 캐시백!

• 네스카드 www.nurseslife.or.kr ☎ 1566-3137

• 대한간호협회

• RNshop

• 마스터카드

• 카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 신용카드